



## ‘새벽술길’을 걷고 싶다

아무 것도 아는 게 없고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이  
평등하게 맞이하는 새벽

쉬위, 조용히  
가만 있어 봐  
누가 오고 있어

박상천 시인은 이렇게 ‘새벽’을 노래했다.

이런 새벽을 ‘술길’에서 맞이한다면, 그것은 산사의 ‘새벽 술길’을 걸으며 맞이할 수 있다.

‘새벽 술길’ 지금 이 글은 보통명사인 ‘새벽’과 ‘술길’을 말하고자 쓰는 게 아니다. 지난 해 4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해남 대흥사에서 마련한 ‘새벽 술길’이라는 이름의 산사 체험 프로그램을 말하기 위함이다.

지난 해부터 조계종의 전국 본·말사에서 2002 한·일 월드컵과 주5일 근무를 대비한 대사회 기여 차원의 ‘템플스테이’와 주말 수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리고 대흥사의 ‘새벽 술길’은 대표적인 산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2002년 4월 첫선을 보인 ‘새벽 술길’은 그해 6월부터 정례화되어 13차례나 진행하면서 매회 25명씩 325명이 참가했다. 특히 ‘새벽 술길’은 일반적인 사찰수련회와 달리 다른 종교인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만큼 사랑을 받았다. 그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불교가 이렇게 세상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워했고, 직접 참가가 아니어도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새벽 술길’을 잠정 중단한다고 한다. 여러 사정을 해야 할 결정이었겠지만,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점점마져 그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겪은 안될 것 같다.

몸으로는 마음으로는, ‘새벽 술길’을 걷고 싶다.

윤재학(취재1부 부장)

# 조계종, 초파일 대사면 단행

## 62년 통합종단 이후 징계자... 400명선 예상

### 삼보정재 탕진·속퇴·취처자 등은 제외

조계종이 올 부처님 오신날에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별빈자를 포함한 모든 징계자를 대상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사면을 단행한다.

관련기사3편  
조계종 사면복권검토위원회(위원장 법등)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종헌 개정을 통해 62년 통합종단 이후 모든 징계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키로 결의하고 4개 결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10·27 법난으로 국가에 의해 징계받은 스님들(별빈자)에 대한 84년도 사면조치와 종단 화합을 위해 실시했던 94, 95년도 사면에 이어 통합종단 이후

네 번째다. 그러나 94, 95년 사면 때는 별빈자가 제외됐었고, 84년 별빈자 사면도 국가에 의해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종단 징계 별빈자를 포함하는 대대적 사면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사면검토위는 결의사항에서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별빈자에 대한 포괄적인 사면을 추진하되, △삼보정재를 탕진했거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와 △사실상 속퇴(退還)했거나 취처(取處)하여 비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제외하고 △94년 개혁종단과 98년 종단사태 관련 별빈자 중

참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의 경우는 교계 신문에 지상에 공개적 참회를 해야만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대사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 올해 초파일에 사면을 단행한다는 방침 아래 곧바로 대상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종헌 개정 및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대상자는 94, 98년 징계자의 경우 별빈자 20여명을 포함한 사면 대상자 160여명 및 복권 대상자 200여명 등 360여명과 62년부터 94년 이전 징계자를 포함해 모두 400여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면절차는 일단 임시총회가 소집되면 총무원장 발의로 사면안

(종헌 개정)을 종회에 상정하고, 종회에서 통과된 안을 종정스님에게 재가를 받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헌 개정은 중앙종회 재적의원(81명)의 3분의2 이상(54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총무원은 15일경 종회소집을 요청할 방침이며,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임시총회는 25일경 열리게 된다.

사면 방식은 사면검토위원회 결정대로 종헌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사면을 규정하고 있는 종헌 제128조에는 ‘별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총무원은 이 단서조항을 이면 사면 대상자에 적용하지 않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북녘 동포에게 자비광명을”

천태종(총무원장 윤대)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8일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 열공OP에서 봉축연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참석한 천태종 불자와 군장병 5백여명은 남북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것으로 드러났다. 직할교구(본사 조계사와 15교구(본사 통도사)가 86,230명으로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했으며, 23교구(본사 관음사, 651명)와 24교구(본사 선운사, 2,685명), 22교구(본사 대흥사, 3,111명), 3교구(본사 선흥사, 3,266명)는 각각 1% 수준에 머물렀다.

관련기사8편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북한산 관동도로건설

#### 노선재검토위 구성 결렬

북한산 관동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놓고 11일 조계종과 정부관계자가 협의를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날 협의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스님과 사회부장 미산스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농수산건설심의관, 건교부 도로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과정에서 두 스님은 수락산·불암산(5·6공구) 공사를 중단하고 현 노선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에서 노선재검토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정부 측에서는 현 노선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노선재검토위를 구성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조계종 실질신도 7만명 불과

## 40~60대가 88%... 교구별 등록 큰 편차

조계종에 등록된 신도가 7만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포교원이 공개한 ‘신도 등록 현황’에 따르면, 96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조계종의 등록 신도는 263,689명이며, 해가 바뀌어 교구별 등록 신도는 6만

4천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법’에 명시된 교무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13.9%에 불과한 셈이다. 20여만 명은 등록했다가 교무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도증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2002년까지 등록된 신도를 본

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 이상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신도의 88%에 달한 반면 40세 미만 신도는 12%에 그쳤다.

교구별 신도등록 편차도 심각한

###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릉: (033)643-5599 동해 삼척: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 스님! 무료로 컴퓨터 배우세요

1차 5월 19~6월 13일, 2차 6월2~28일

해당지역 스님·총무원 많은 참여바랍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스님들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스님과 총무원들만으로 구성되는 특별한 체제로 운영됩니다. 교육 실시 지역의 스님과 총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제1차 구리·남양주지역 교육 안내

지역	대상	기간	장소
경기	구리·남양주시 스님 및 총무원	5월 19일~6월 13일(4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4시~6시	구리 우체국 4층 정보교육실

#### 제2차 춘천 및 강릉지역 교육 안내

지역	대상	기간	장소
춘천	춘천 일원 스님 및 총무원	6월 2일~6월 28일(4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4시~6시	춘천우체국 정보교육실
강릉	강릉 일원 스님 및 총무원	6월 9일~6월 27일(3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30분~3시 30분	강릉우체국 정보교육실

-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 수강료: 무료(교재비 4천원 본인부담)
- 신청 접수: 불교정보화협의회 사무국장 임연태 02-722-4162, ytlim@buddhapia.com
- 신청 기간: 5월 4일까지 전화 및 전자우편
- 모집 인원: 각 지역 15명

\*3차 이후 교육은 추후 공지합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현대불교신문사

### ‘만평’ 시사만화가 심민섭 씨가 그림니다 2편



시사만화가 심민섭(사진) 씨는, 한국일보와 세계일보, 국민일보에서 시사만화 <심마니>를 연재, 독자들로부터 사건의 본질을 꼬집어내는 예리한 시각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독자들은 심 화백의 붓끝에서 나온 ‘춘철살인’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민섭 씨는 1948년생으로 84년부터 6년간 주간한국에서 만화칼럼 <가라사대>를 연재한 것을 비롯해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대전일보 등에서 만화와 만평을 실어왔습니다.

### 이호신 화백의 ‘인도 그림기행’ 새연재 32편



이호신 화백(사진)이 이번 호부터 화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인도의 삶과 풍물, 성지순례(불교유적) 예술기행을 연재합니다. 한국화의 기법을 바탕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그림과, 현상을 넘어선 생명의 본질을 만끽하게 하는 글에서 독자들은 인도의 역사와 현실을 새롭게 통찰하고 불교유산의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호신 화백은 1957년생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여섯 차례의 개인전과, <길에서 쓴 그림기행> <숲을 그리는 마음> 등 여러 책을 펴냈습니다.

### 클릭하세요! 경품이 와르르...

www.buddhanews.com 봉축특집 코너

# 아! 큰스님

## 북한 민수대창작사 작 ‘근세 고승진영 지수진’

### ▶ 개막식

불기 2547(서기2003년), 4. 22(화) 오후2시  
법연사 불일미술관(서울 사간동)

### ▶ 관람안내

- 전시기간 : 4월 22일(화) ~ 4월 28일(월)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입장료 : 무료
- ※ 전시기간중 무휴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 후원 : 문화관광부, 봉축위원회, 핸드코리아

현대불교신문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www.buddhanews.com



### “한평생 수행과 교화로

#### 20세기 정신적 師表”

근세 100년 격동의 20세기를 한평생 수행과 교화로 살다간 한국의 큰스님 20분이 자수로 다시 우리곁에 오셨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내 최초로 20세기 고승 20분의 진영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의 민수대창작사의 정통 손자수로 한 짚한 짚 수놓아 창작한 “아! 큰스님-근세고승진영 지수진”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북한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와 예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창작성과를 제시하고 불교문화의 새 장을 선보이게 될 이번 전시는 관람 그 자체만으로도 신성과 환희심을 내게해 포교에도 광범위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행의 궤적이 담긴 큰스님들의 모습이 가는 명주실과 천연염료를 사용해 만들어진 자수작품은 미술계에 획기적인 전통자수의 창작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는 인물로 본 한국불교 근대사의 정열이 뿐만 아니라,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20세기 근세 한국불교의 큰스님들은 집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단순히 종교적 의미에 머물지 않는 우리 역사와 사회를 이끌어온 정신적인 지주이셨습니다. 이들 큰스님들의 수행으로 점철된 모습은 그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선대 큰스님들의 지혜와 유언을 되새기며 분발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한편, 예술에서 자수라는 장르는 워낙 공이 많이 들어 현대사회화 되면 될수록 명맥만을 이어갈 정도로 어렵게 전승되고 있는 분야로서 다만, 북한사회의 특수성으로 유일하게 번창해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작품들은 그 자체로 전통 손자수라는 기법적 특성으로 국보급 현대불교미술품으로 평가받아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법연사 불일미술관 교통안내 (02-733-5322)  
지하철 안국역에서 하차 1번출구(종로역교차로)로  
나오셔서 경복궁 방향으로 직진(경복궁 동문 맞은편 위치)